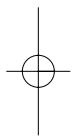


ALEX M.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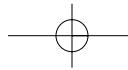


GALLERY **DOS**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15-52 Tel. 02 737 4678

Gallery DOS

ALEX M. LEE





Temporalities

Alex M. Lee

2012. 4. 6. Fri - 4. 12. Thu

Alex M. Lee 2012. 4. 6 _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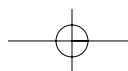
Copyright for catalogue © 2012 Alex M.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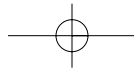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

Curated by Gallery DOS

GALLERY **DOS**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미향 / 갤러리 도스

시간은 흐른다.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그 현재는 다시 과거가 된다. 이렇듯 영원히 움직이는 이미지로서 시간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작가가 겪었던 사진 작업에 대한 경험들은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갖게 한다. 사진이란 매체가 가지는 시간의 불연속성과 그에 따른 서사성의 부재에 대해 한계를 느낀 작가는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프린트와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작가의 주된 관심은 빛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 혹은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시간의 개념들을 디지털로 이미지화시키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예술이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자 한다.

디지털의 등장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는 예술을 물질성에서 벗어나 0과 1이라는 숫자의 정보로 환원되게 한다. 이러한 비물질성은 사진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날로그 사진이 가지고 있던 '지표 (Index)' 즉, 대상을 담기 위해 빛과 화학작용이 만들어 낸 흔적의 개념은 상실의 위기를 맞이한다. 지금까지의 사진이 보여준 재현은 재현된 대상과의 분명한 관계를 보여주었지만 컴퓨터의 활용은 재현을 대상에서 해방시킨다. 역사 속에서 분리되었던 과학과 예술, 가상과 실제의 경계는 이제 무의미하며 작가는 컴퓨터를 통해 대상을 재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관람객은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 안에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된다.

작가의 일관된 관심은 시간이라는 요소에 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시계 속 시간과 같이 움직임으로 인식된다. 시간은 곧 운동이며 변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올바른 방향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시간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주체로서 본인이 경험한 시간이야말로 존재하는 시간의 실체인 것이다. 우리는 공간을 포함한 또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기억한다. 여기에 근거하여 작가의 표현 대상은 작가가 머물렀던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든 폭넓게 수용된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작가에게 공간은 여러 개의 켄 (Layer)가 연속적으로 중첩된 형태로 인식된다. 디지털이미지의 연속체인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연출된 빛의 변화는 그림자와 함께 흑과 백의 점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켄 (Layer)와 켄 (Layer) 사이의 간극을 이동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간의 인과관계에서 오는 서사성과 함께 작가가 가진 풍부한 문학적 소양 또한 공간의 한 켄 (Layer)가 되어 작품 안에서 적절히 맞물리고 또 다른 인과관계를 낳는다.

작가는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된 생각이나 감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가변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다. 철저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빛의 움직임과 그에 의한 시간의 흐름은 문학적인, 역사적인, 공간적인 언어들과 어우러지며 다양하게 이미지화된다. 여기에 벽면에 투사되는 무한 반복되는 영상들이 가지는 시간의 영속성과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작품으로써 접하게 되는 시간의 단일성이 교차된다는 점은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한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시간에 대한 인식의 틀 뿐만 아니라 예술의 재현이라는 체계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In search of lost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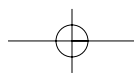
Gallery DOS / Mihya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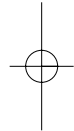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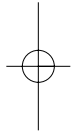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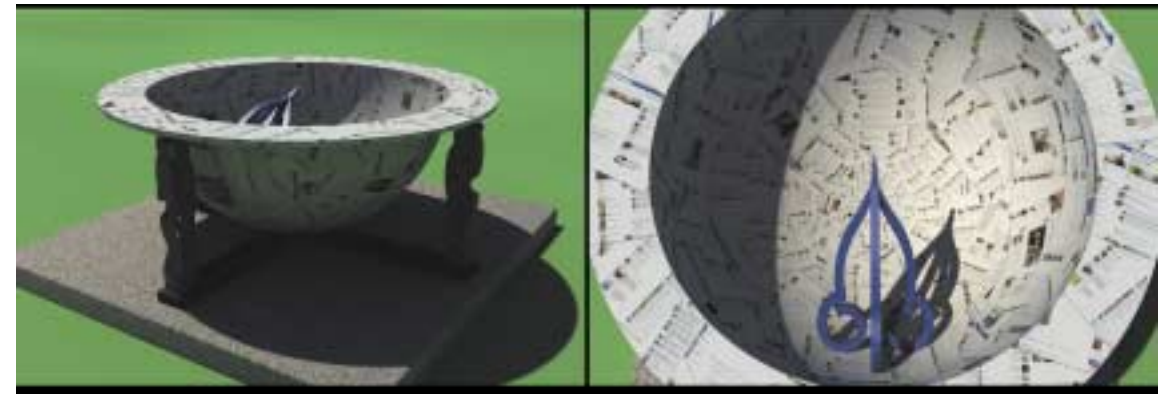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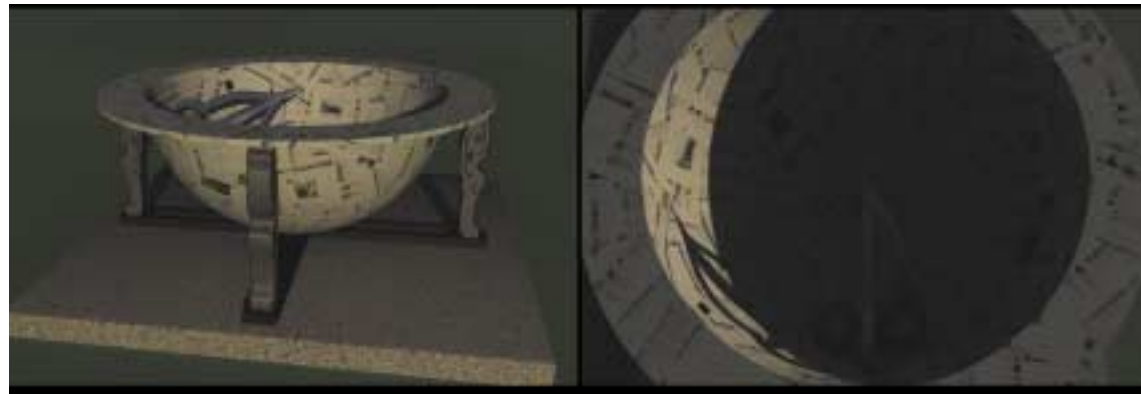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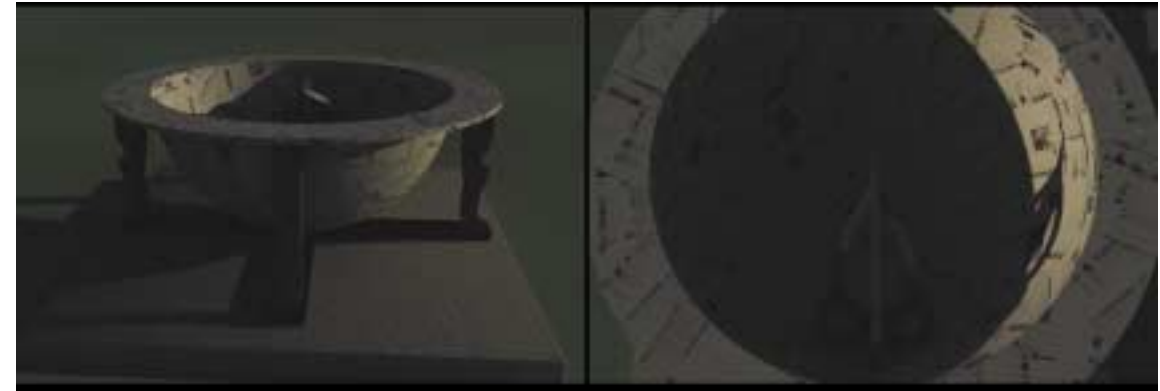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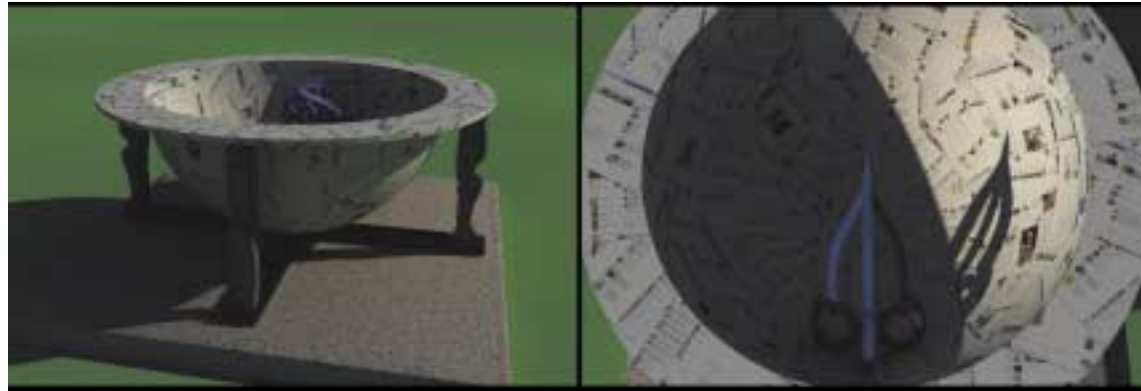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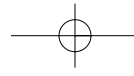
Time flows. Present becomes past, future becomes present, and the present also becomes past again. In other words, time is always with you as a moving image permanently. The artist's formal training in photography underlies these questions: "how does time function? What is our relationship to it?" The medium of photography inherently displaces time and narrative. The artist is trying to describe this perspective by utilizing computer animations and digital prints. An expanded practice of photography is explored, by simulating light and space within the time-based medium of computer animation.

With the appearance of the digital image in the early 80's, the photograph has increasingly lost its object-ness. The days of toiling within a darkroom is being replaced by the digital print. Binary code, ones and zeroes, are the materials comprising an image these days. But because of this, the indexical connection between light and the image comes into question. Rather than being a direct trace of light on a chip or on film, we now have software that can generate and simulate these things with accuracy. The next evolution in photographic imagery will be the computer-generated image. The artist here poses the question of art being made with this process. He reinterprets history, time, and space to present a sense of something uncanny within a work of art that is made virtually.

With the theme Temporalities, the artist highlights the aspect of time within his work. The movement of light within the animation creates a gradual movement of shadows indicating the passage of time. The flow of water or the way light behaves is accurately simulated within the computer animation. The space of the virtual creates a framework for the artist to simulate these phenomena using the laws of physics. The artist sees the potential for new forms within the virtual - playing off of the natural laws of nature to create a different sublime experience.

With precise simulations, the movement of light and the passage of time are imaged with layers of literary, historic, and spatial meaning. The endlessness of these animations is a finger, pointing to the permanence of time. There is no beginning nor end and the viewer can view these pieces at any given moment. The artist presents a variety of perspectives based upon his own experiences by utilizing this medium. Each piece represents a moment in the artist's lifetime. This exhibition has special meaning for the artist as all of the recent animations are within one space. This creates a space for dialogue between each of the works and an interaction between each piece.





Haeshigae (for Pro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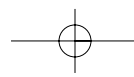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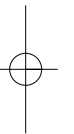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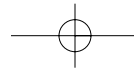
two-channel 3D animation, stereo sound

1 hour 40 minutes, looping infinitely

작품 '해시계'는 과거 조선시대의 해시계에 전세계 다른 친구들로부터 보내온 대화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수집한 3개월 동안의 기록을 이미지화 하여 재현한 이중채널방식 애니메이션작품이다. 태양의 빛이 움직이는 궤도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이작품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그림자의 흐름을 재구성한다. 작품속에 등장하는 시뮬레이션 이미지 하나하나가 실제시간인 초단위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진정한 시간적 의미를 갖게해준다. 또한, 페이스북페이지에 남겨진 기록을 가상세계의 시간에 비유함으로써 시간의 개념을 작품에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Haeshigae (for Proust) is a two-channel animation of the virtual recreation of an ancient clock, the Korean Sundial (originally developed during the Joseon Dynasty), covered with Facebook posts collected from various friends over the course of three months. An aggregated simulation of sunlight passing over the course of a season (without nighttime situations) creates a cast shadow that indicates the passage of time. The frames of the animation advances every second in real time allowing the animation to be utilized as a true timepiece (by seconds), but also abstracting the concept of time and the virtual-tying it to memory through the status box of a user's Facebook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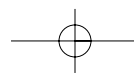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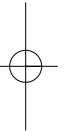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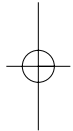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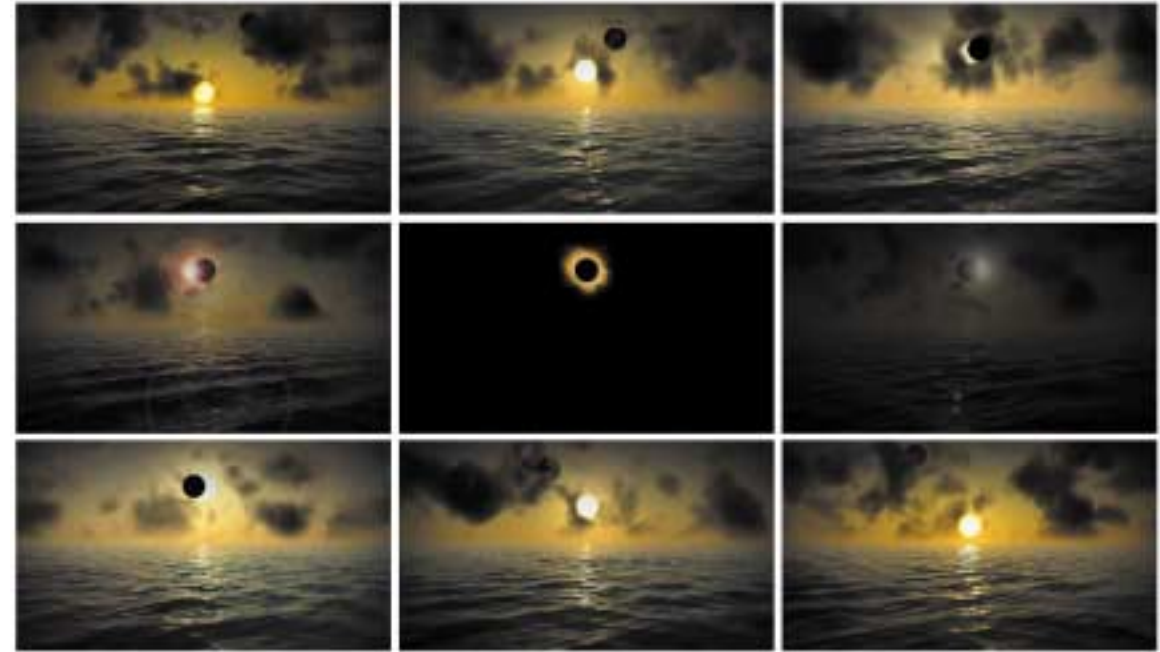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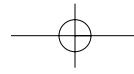


The Glass House (after J.G Ballard)
2011
3D animation, stereo sound
8:15 minutes

'글래스하우스' (유리집: 발라드 작품의 재구성)는 미국 컨네티컷주 케이난 타운에 있는 필립 존슨의 유명한 '글래스하우스'를 디지털미디어로 재구성해서 싱글채널방식으로 투영한 작품이다. 유리를 사용해서 만든 당대 걸작으로 알려진 '글래스하우스'를 3D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빛과 그림자가 시간의 흐름을 통해 변화해가는 모습을 재구성했다. '글래스하우스'는 1949년에 건축되었으며, 2005년 필립 존슨이 운명할 때까지 58년간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그 곳에서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 이야기는 발라드의 단편소설인 스텔라비스타의 천 가지 꿈에서 나온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유명한 건축가(소설 속의 인물) 미에즈 반덴 스타가 건축한 집에서 살다가 잠이든 채로 죽게 된다. 사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인 존슨보다 더 열악한 상태로 죽게 된다. 이 애니메이션 작품은 가상과 실상의 이야기를 나란히 정렬해 놓음으로써 현대 건축과 심리적인 공간 그리고 상실과 회상을 표현하고자 한다.

The Glass House (after J.G. Ballard) is a single-channel projection involving the virtual reconstruction of Philip Johnson's famed Glass House in New Canaan, Connecticut. Known as a masterpiece in the use of glass, the 3D animation shows the Glass House in various simulations of light and shadow. Built in 1949 as his own private residence, Johnson lived at the weekend retreat for 58 years before passing away while asleep there in 2005. Text is taken from passages of J.G. Ballard's short story The Thousand Dreams of Stellavista. The story involves a protagonist living in a house built by famed fictitious architect Mies Vanden Starr. Starr had lived in the residence previously and passed away there while asleep (albeit under more nefarious circumstances than Johnson). The 3D animation juxtaposes these two fictitious and realistic narratives to present an essay on Modernist architecture, psychological space, loss and mem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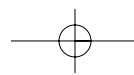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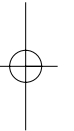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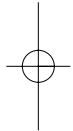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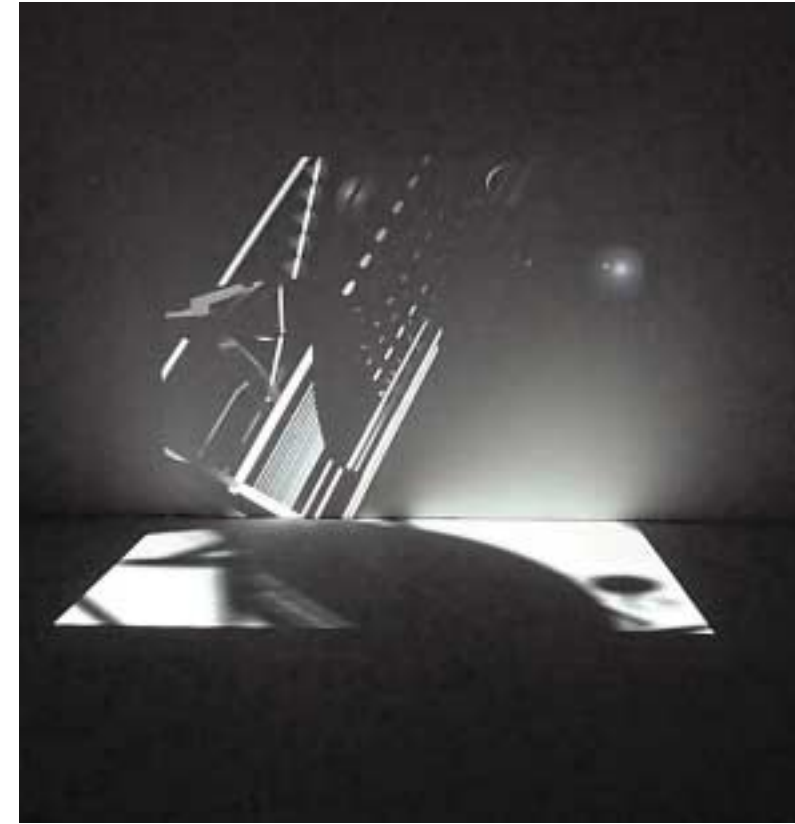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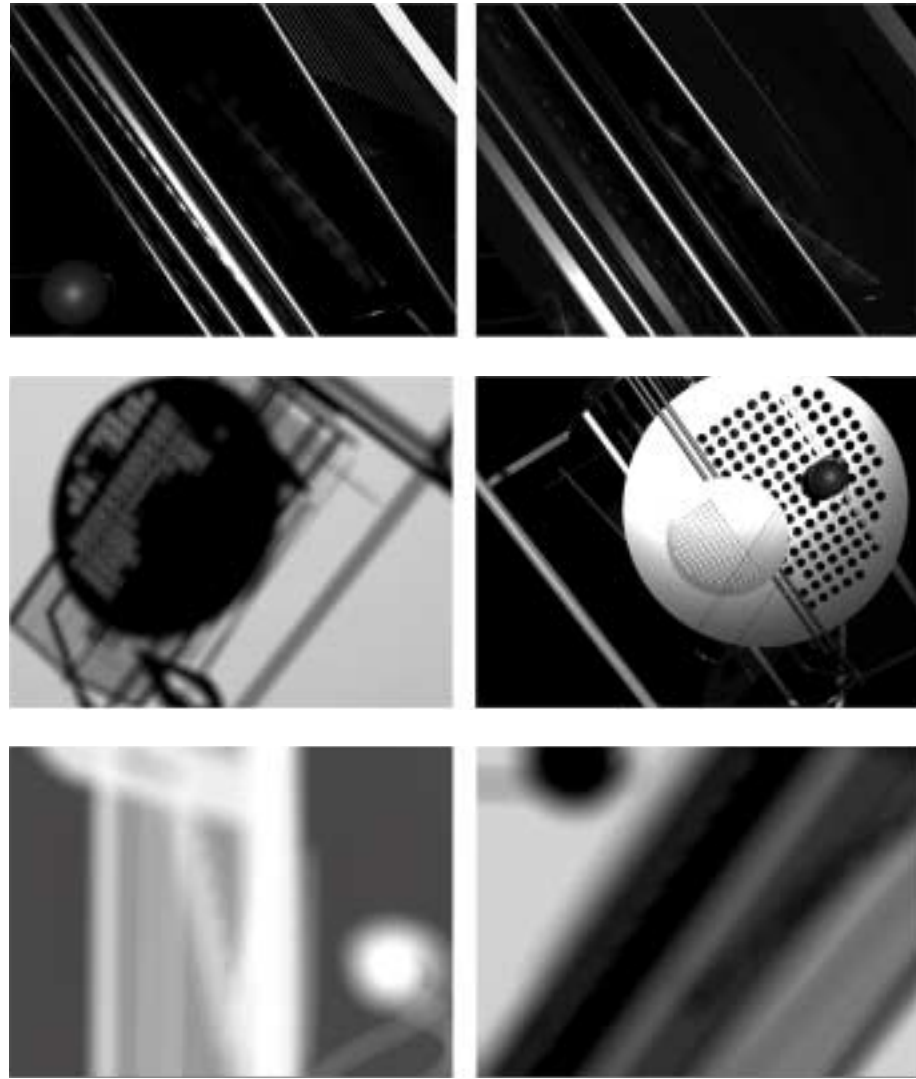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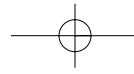


The Frequency of Space / Time
2010
3D animation, stereo sound
32 minutes looping infinitely

'시공간의 반복'은 토달 이클립스(개기월식, 개기일식: 태양과 달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현상)를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움직이는 바다 위를 서서히 오르내리는 해를 따라 달이 포물선을 그리며 따라간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로막는 개기일식이 매 16초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매 32초마다 반복된다. 이 웅장한 자연경관이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한 빛의 현상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창조해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The Frequency of Space/Time is a computer animation of an artificial sunrise/sunset with a total eclipse of the sun by the moon occurring at the apex of its position above the horizon. The moon follows a parabolic trajectory while the sun slowly rises and sets over a simulated moving body of water. Total eclipse, known as totality, occurs every 16 minutes in the animation while the whole piece cycles every 32 minutes. I began the idea with the intent of creating an impossible artificial phenomenon in light while repeating that sublime experience endless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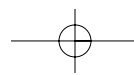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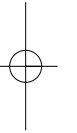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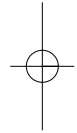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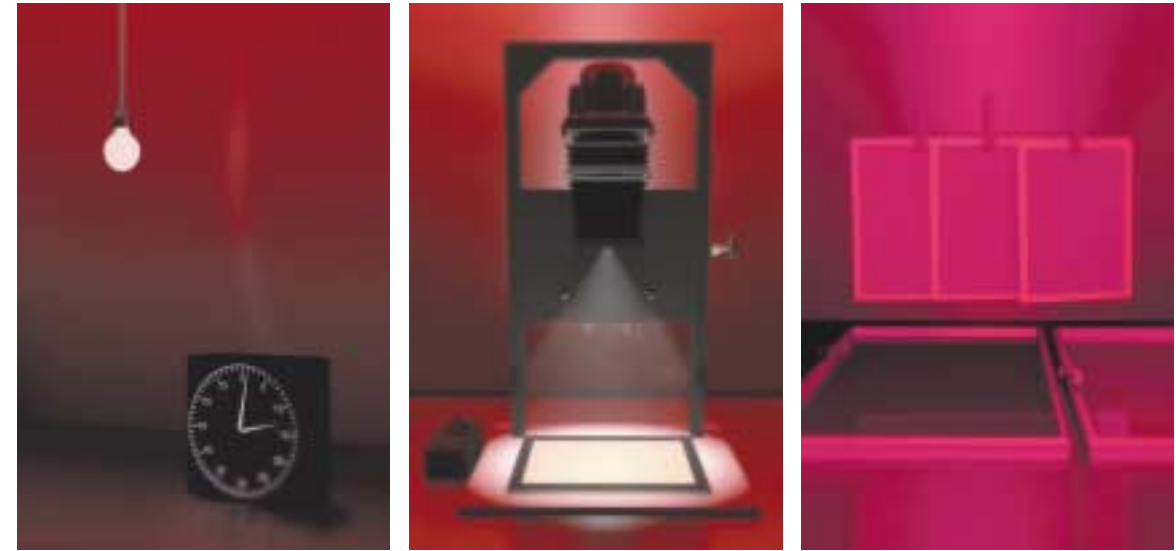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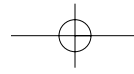


Lazlo's Shadow (after Light Space Modulator)

Lazlo's Shadow(After Light Space Modulator)는 Lazlo Moholy-Nagy의 'Light Space Modulator'를 가상 이미지로 재현한 이중채널방식 애니메이션이다. 본래 1930년대 만들어진 'LSM'은 20세기 시대정신(자이가이스트, zeitgeist)의 한 부분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매개체라는 Moholy-Nagy의 믿음을 담고 있다. Lazlo's Shadow는 갤러리의 현재 실존하는 공간에서 가상 그림자와 빛을 정확히 표현하는 동시에 원작의 'LSM'을 3D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재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상 이미지를 구현함에 있어 문화와 과학기술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현실세계의 상대성을 재조명하는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적절히 재창조되었다. 3D이미지의 최근 동향에서는 바우하우스 스타일 이후로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며 기계,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Lazlo's Shadow (After Light Space Modulator) is a two-channel video projection involving the virtual re-creation of Lazlo Moholy-Nagy's Light Space Modulator. Originally created in 1930s, the LSM embodied Moholy-Nagy's belief in the utilization of machines in the creation of art to be part of the zeitgeist of the 20th Century. Lazlo's Shadow utilizes the abilities of 3D computer graphics to re-create and re-structure the presentation of the original LSM while accurately presenting a virtual cast of shadow and light in the physical space of the gallery. Lazlo's Sha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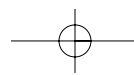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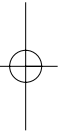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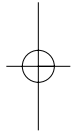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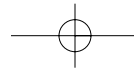


Machinic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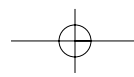
이 작품은 컴퓨터-지원 디자인(CAD: Computer-Aided Design)을 사용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예술적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새로운 미디어(CAD)는 사진작품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표현하는데 획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사진 이미지가 항상 빛을 포착하고 지표(index)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물리적 요소로서의 빛을 제거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구성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지털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사진의 지표성(indexing)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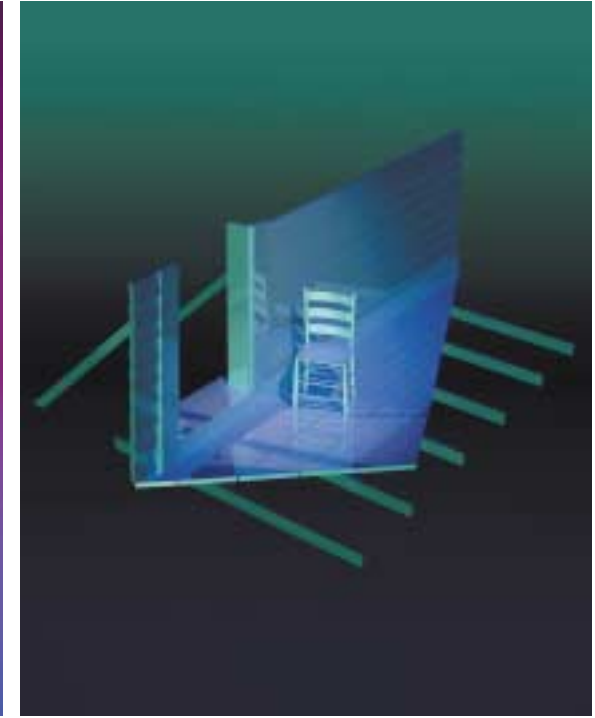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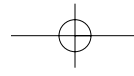
This work focuses on the potential for new forms utilizing computer aided design that would present a paradigm shift in representation and photographic imagery. While traditional photography has always been connected to the capturing / indexing of light, this work explores the abilities of digital imaging to shatter that physical connection to a more radical position of the photographic image as a data set that can be rendered through a computer virtually. I see this work as addressing the emancipatory possibilities of photography's loss of the index.





Machinic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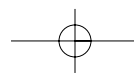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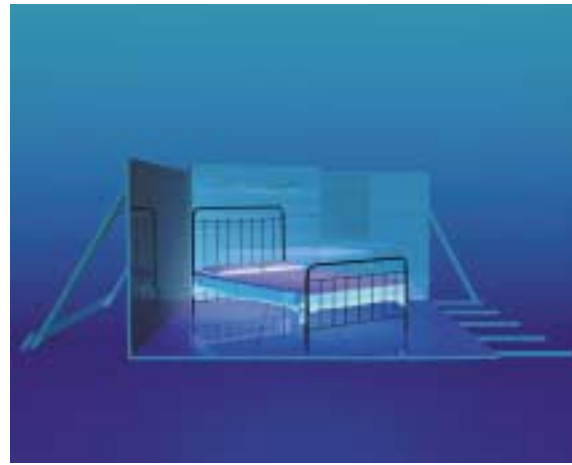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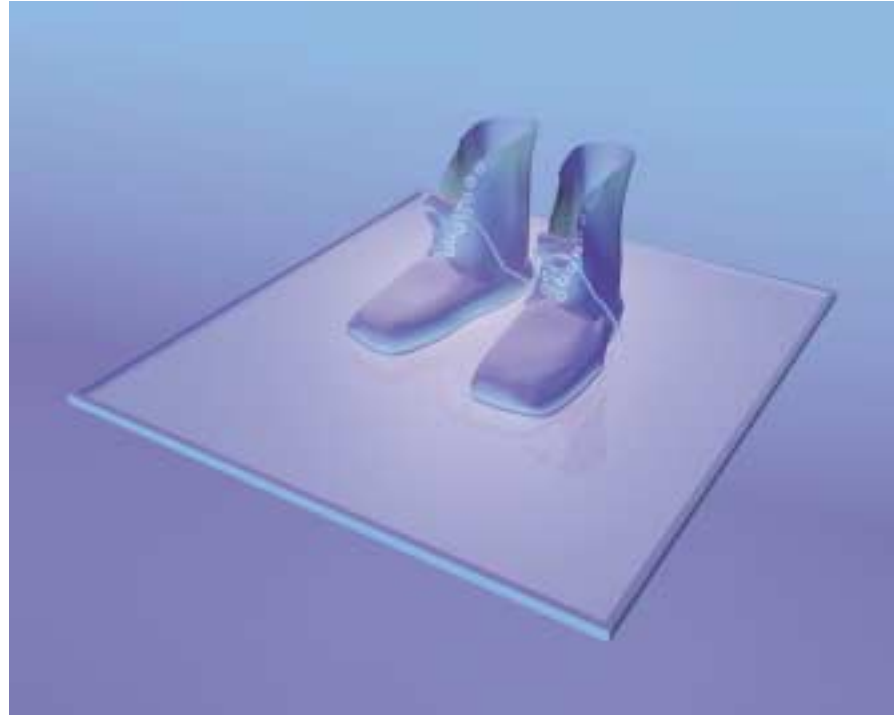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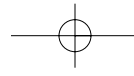


Let Us Now Praise Famous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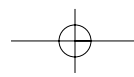
워커 에반스의 예술 다큐멘터리 사진작품을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특히 '보로가족(the Borough Family)'에 나오는 에반스의 초상화들은 사회적 다큐멘터리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간주되지만, 사실 에반스의 많은 사진작품들은 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이미지들은 관객들을 한 발자국 뒤로 몰려서서(a Brechtian 'verfremdungseffekt') 원작의 연출된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보다 더 분석적인 위치에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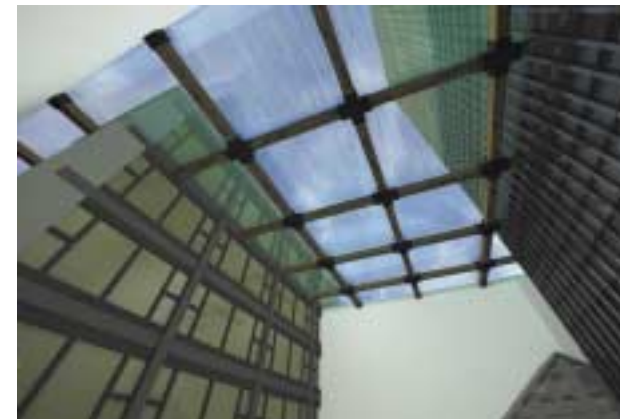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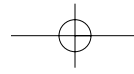
Walker Evans' artistic documentary photography is re-drawn as theatrical sets on the computer. Specifically of the Burroughs family, Evans' portraits are often considered to be quintessential examples of social documentary, but my deeper investigation revealed an understanding that many of these photographs are staged. My images place the audience in a 'once removed' position, a Brechtian 'verfremdungseffekt', in order to produce an analytical position rather than propagate constructed empathy.





Let Us Now Praise Famous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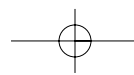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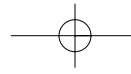


Manifold Structures

'각종 건축구조물'은 특정 장소에 설치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본 작가가 일터로 가기 위해 매일 오고가는 미국 시카고의 몬로스트리트와 와바시 에브뉴의 교차로 건축물을 디지털미디어로 재구성 해본 것이다. 이것은 웨이메이커화랑안의 공간에 설치 되어있다.

Manifold Structures is a site-specific project involving the re-creation of the intersection of Monroe & Wabash, Chicago-which I cross daily while going to work. This is created within the virtual space of Waymaker Gallery.





Alex M.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Media Design, Woosong University, Daejeon, Korea

Education

- 2009 MFA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emphasis in Art & Technology
- 2005 BFA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emphasis in Photography

Solo Exhibitions

- 2012 Temporalities, Gallery DOS, Seoul, Korea
- 2009 Manifold Structures, a virtual installation involving the recreation of Chicago's corner of Monroe & Wabash street at the online fictional venue: Waymaker Gallery, New Calodon, Yorktown.
http://www.waymakergallery.com/shows/Lee01/Lee01_install.html
- 2009 Epic Theater: New Work from Alex Lee, February Gallery, curated by Jamilee Polson
(a project gallery dedicated to work specific installation rather than site specific), Chicago, IL
<http://twelvegalleries.com/artwork/733506.html>

Group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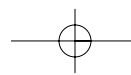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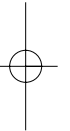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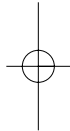
- 2011 The Aesthetics of the Fake, group exhibition, curated by Rachel Clarke, William Paterson University, Wayne, NJ
- 2011 Prak-Sis Experimental Film Screening, group exhibition, curated by Mi-yeon Kwon, Chicago, IL
- 2011 The Aesthetics of the Fake, group exhibition, curated by Rachel Clarke, Sacramento University Library Gallery, Sacramento, California
- 2010 Prak-Sis [SMB Project], group exhibition, curated by Mi-yeon Kwon, Chicago, IL
- 2010 Long Beach Island Foundation for the Arts and Sciences, National Juried Competition: Digital Works, curated by Marisa Olson, Long Beach Island, New Jersey
- 2009 Barewalls, benefit auction for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
- 2009 Art Chicago: NEXT Art Fair: Waymaker Gallery, Merchandise Mart, Chicago, IL
- 2009 Sugar: New Media Work, Around the Coyote Festival, Chicago, IL
- 2009 Graduating MFA Exhibition,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
- 2009 Mio Photo, Mio Hall, Osaka, Japan
- 2008 Wordplay, South Side Community Art Center, Chicago, IL
- 2006 Active Liberty, SUG Gallery, SAIC, Chicago, IL
- 2005 Everybody Paints!, Parlour, Chicago, IL
- 2005 Postcard Show, The Contemporary Artists Center, North Adams, MA
- 2005 Made in NA, MA, The Contemporary Artists Center, North Adams, MA
- 2005 Then & Now, Gene Siskel Film Center, group show, Chicago, IL
- 2005 Turn Over Across A Revolution, G2 Gallery Space, group show, Chicago, IL
- 2005 Nippon Awards Show, Nippon Steel, Inc., Chicago, Illinois
- 2004 Exquisite Piknik, Doubner Space, group show, Prague, Czech Republic
- 2004 Social Alterations, SAIC admissions gallery, group show, Chicago, Illino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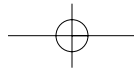
Publications

- 2012 Anti-Utopias, by Sabin Bors, print publication (forthcoming Fall 2012)
- 2012 Anti-Utopias, by Sabin Bors, online publication, <http://www.anti-utopias.com/>
- 2010 Reframing Photography, by Rebekah Modrak and Bill Anthes, Routeledge Press (online version)
- 2009 Mio Photo exhibition catalogue, Osaka, Japan
- 2008 Wordplay Exhibition Catalogue, Chicago, IL
- 2005 Helix Magazine, Winter Issue, New Britain, CT
- 2005 Helix Magazine, Spring Issue, New Britain, CT
- 2005 Nippon Steel, Inc. Annual Catalog
- 2004 Featured Artists, F News Magazine Chicago, IL
- 2003 Featured Art, Canton Connecticut Publication, Canton, CT
- 2003 Selected Shows, The Hartford Advocate, Hartford, CT

Honors

- 2009 MIO Photo, Jurors Award, Osaka Japan
- 2007 MFA Scholarship,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 2005 BFA Graduating Fellowship Award Recipient, SAIC
- 2005 Nippon Steel U.S.A./School of the Art Institute Presidential Awards Competition
- 2003 Merit Scholarship,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 2003 Merit Incentive Scholarship,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lex M. Lee would like to thank the following persons:

His father, Lee W. Lee, and Soyoung Kim for their efforts in the translation of the included text into Korean.
Byeongsam Jeon and Chaewon Kim for their assistance and advice for the preparation of this exhibition.
His mother, Kaye Lee, for her unfailing support and love throughout his artistic career.

